



해외소식

유엔 「국제水路협약」 채택

유엔은 지난 5월 갈수록 점증하는 국가간 물분쟁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수로(水路)이용의 기준이 될 첫 국제협약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수로에서의 댐건설 및 선박항해의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로의 비(非)항해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을 27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백3국, 반대 3국으로 채택하였다.

이 국제협약은 선박의 항해금지를 포함, 수로의 상류국가들이 댐을 건설할 경우 하류국가들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환경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후속 수로협정에 토대가 될 첫 기본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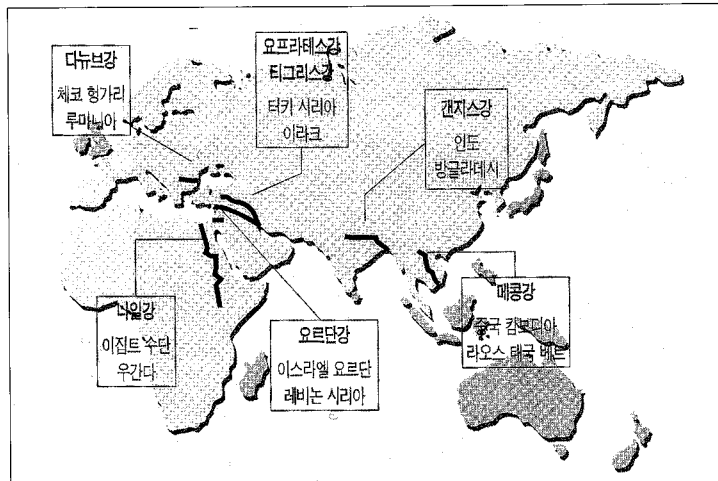
이 협약은 앞으로 3년 동안의 서명기간을 거친 뒤 각국의 비준을 거쳐 35번째 나라가 비준을 한

뒤 90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발효하게 된다. 그러나 비준국가만이 협약의 의무규정을 준수토록 되어 있으며 비가입국 등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현재 관련 수로에 댐건설을 추진중인 중국, 터키, 부룬디 등 3개국이다. 터키의 유엔주재 후세인 첼럼대사는 『하류국가들에 댐건설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협약의 의무사항은 사실상 하류국가들에 「거부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2개국 이상을 관통하는 이른바 「다국적 수로」는 현재 2백 14개이며 이날 채택된 국제협약은 이들 수로의 상하류에 분포하고 있는 50여개국의 분쟁해결에 기준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동아일보 》

◆ 세계 주요 물분쟁 지역 ◆



나일강의 컴퓨터지원 시스템

애틀란타의 조지아 기술연구소는 합리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를 다지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나일강 수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집적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유엔의 FAO와 계약한 것으로 자금은 국제개발기구의 미국지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는 조지아연구소와 미국 기상청과의 공동연구로 이 집트 정부를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스템은 기상동역학이나 유역의 반응, 환경영향 그리고 인간의 요구사항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계량화하였는데 이것은 정밀한 예측과 효율적인 일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강우량, 하천의 유량 및 수위수문곡선, 토양의 수분분포, 온도 그리고 증발산량 등과 같은 수문기상학적인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인공위성, 레이다 그리고 지상관측소로부터 수집되는 이러한 자료들은 수자원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과거보다 관리자에게 얼마나 더 접근성이 좋은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일단 설치되면 서로 다른 기상인자, 용수나

전기수요량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 등에 대한 하천과 저수지의 반응을 모의할 수 있다. 이것이 관리자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물수요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일강에는 사용과 관리차원에서 서로 동의해야만 하는 유역전반에 걸친 주요 문제점들이 있다. 적도부근의 호수로부터 4,000마일을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나일강은 10개 국가의 약 2억 5천만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제는 중국의 양자강, 그리스의 아콜루스강, 그리고 브라질의 이구아쿠강과 같은 전세계의 다른 많은 하천을 위한 표준모형이 될 것이다. 조지아 연구소 연구팀은 미국에서도 중서

부의 몬스강 등과 같은 몇 개의 하천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물은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특히 여러 국가가 제한된 수자원을 분배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천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서로의 의견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Civil Engineering »

